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지원심의평

연극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 7(화) 10:00~18:0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2차 PT 및 인터뷰) 2.21(화) 10:00~13:30,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구태환, 백하룡, 소홍삼, 송훈상, 심재민, 안치운, 이봉규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목적은, 우수한 창작공연이 재공연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데 있다. 지원예산은 3억5천만 원이며, 일반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을 모두 합하여 총 113건이 접수되었다. 기공연작들이 심의대상이므로 그 우수성이 검증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전체 지원작에서 2차 심의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실행되었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지원심의의 기본방침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 ‘창작공연’ 개념의 정의와 관련해서, 국내 작가의 창작품 공연뿐 아니라 해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창의적인 변안공연 및 독창적인 연출공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심의위원들은 해석하였다.

2. 선정대상작들에서 어떤 일관된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를 올해 심의위원들이 의도한 선정 방향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하였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각 작품별로 독특한 장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3. 이미 특정 극단에서 안정적인 레퍼토리로 상설화된 경우에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 제기되었으며, 선정을 통해서 극단의 자체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극단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설득력이 있었다. 따라서 선정 작업 시에 공연의 상설화 여부보다 작품의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4. 2차 심의대상작의 선정 건수와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3억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5. 전년도 타 분야의 기수혜대상작을 올해의 레퍼토리에서 재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이 역시 사안별 대응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상의 토론 결과에 이어서 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극단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극계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감안해서 심의함으로써 해당극단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둘째, 동점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 셋째, 평균점수 상위 10위권 안팎에서 최종적으로 2차 심의 대상의 커트라인을 결정한다. 넷째, 어린이·청소년극도 반드시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비교 우위 작품을 우선적으로 감안한다. 다섯째, 작품실적 및 창작산실 여

부 문항에 대한 평가 시에는 위원회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미 산출된 점수를 따른다.

이상의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점수 80점을 커트라인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상회하는 8편의 작품(어린이·청소년극 2편 포함)을 2차 심의대상으로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2차 PT심의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관련 단체의 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상공연들을 주제적 및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자기성찰과 사유를 추구하는 연극
2. 폭력적 사회구조와 개인의 갈등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구조를 고발하는 연극
3. 인간의 내면적 상처를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연극
4.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하면서 성장드라마를 지향하는 연극
5. 사회경제적 문제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경우를 다룬 연극
6. 영상이미지와 음악의 결합을 통한 시청각적 이미지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극
7.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관객에게 새로운 관극방식을 요구하는 연극

대상 공연들과 관련된 심의위원들의 토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또한 이러한 지점들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은 창작산실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토론의 결론은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1. 어린이·청소년 대상 공연이 반드시 최종 선정되어야 하는가. 즉 예산책정의 신뢰성이나 PT발표 내용의 적절성 여부보다 ‘미래의 관객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특정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양식이 반드시 최종 선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결론은 작품의 수준과 합리적 예산책정이 전제된 가운데 특정대상을 겨냥해야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로써 창작산실 지원에서는 무엇보다 주제적·형식적 측면에서의 작품의 수준과 더불어 예산책정의 성실성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2. 언어 중심의 연극, 다시 말해서 기호학적 해석 자체에 몰두한 연극만이 관객의 선호를 충족시키는가. 하지만 다양한 양식과 형식적 실험을 추구하는 연극을 선정함으로써 관객의 관극방식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연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관철되었다. 이로써 창작산실 지원은 형식적 실험을 통한 연극양식의 다양성을 지향해야한다는 방향성이 향후 의미 있는 선정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동시대 한국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내재적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주제를 다룬 작품의 경우에 실험성과 완성도 사이의 작은 괴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결국 실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하고 성실한 예산책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성과 그 진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창작산실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험성을 드러내는 참신

한 작품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실례를 제시한다.

4. 번안 작품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번안’의 개념에 대한 허용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대두하였다. 번안은 원작이 ‘목표 문화(target culture)’인 한국의 역사적 및 문화적 상황에 적절하게 옮겨진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극중 인물이나 상황이 때때로 등가성의 원칙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작품의 경우가 지적되었다. 향후 창작산실 지원에서 보다 명료한 번안의 기준에 대한 학술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상의 주제적·형식적 특징들을 노정하는 대상작들이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에게 던져준 다양한 문제의식은 향후 창작산실 지원 방향 및 기준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확신한다. 또한 오늘의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들 역시 이러한 방향성과 기준을 이미 일정 부분 제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여기서 오늘 심의위원들의 토론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평균 80점을 상회하는 여섯 작품을 올해의 지원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개별적인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은 각 단체의 신청액을 바탕으로 도출된 순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액수를 산출해내었다.

올해의 선정작 전반과 관련해서 어떤 일관된 방향성의 인식여부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작품의 수준과 예산책정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또한 주제적·형식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었다. 더 나아가 선정작들을 통해서, 연극예술이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관계양상을 노정할 뿐 아니라, 동시대 한국사회의 독특한 상황과 구조 안에서 개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역시 창작산실 지원의 소득이자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예위 관련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또한 심의위원들의 진지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이 한국연극 발전에 나름대로의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위로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2. 6(화)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 21(화)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박재홍, 안애순, 오문자, 이경옥, 이창기, 조성주

무용창작산실_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은 총6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필수서류 미비 등의 결격 사유를 가진 2건을 제외하고 총 60건을 대상으로 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심의위원들은 신청 사업들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교환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청 작품들에서 가장 흔히 발견된 아쉬움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표현 형식이 시도되고 있으나 내용과 스타일을 구성하는 맥락상의 허술함이 발견되고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에 대한 개괄적 공유였다.

이를 거쳐 본 사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가치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종합토론 과정이 이어졌는데 예술적 수월성이 높은 작품들이 대중들을 만나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접근과 더불어 이를 선별해내기 위한 관점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이상의 방향성이 함께 논의되었다.

한 가지는 작품 소재와 춤 역량, 표현 양식 등에 있어서 종래의 일반적인 기대를 고르게 충족시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작품들이 대중적 공연물로서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점이었고, 또 다른 측면은 춤과 여타 요소들에 대한 독자적 해석과 접근을 통해 기성의 경향과는 차별성을 두려하는 내용과 형식들이 소개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무용예술의 다양성을 소개한다는 지점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세부 심의 전에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은 신청 작품들 안에 관습적 형식미를 추구하는 태도와 무용예술의 개념 확장을 추구하는 태도가 질적 편차와 함께 섞여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데, 관련하여 사업의 결과적 방향성과 영향이 확실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심의위원회의 동시대적 인식이 전제가 되었다.

관점과 현상에 대한 개괄적 토의를 참고하여 심의위원들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태도와 작품의 양식적, 표현적 정련이라는 문제를 입체적인 프레임으로 삼아 세부 심의에 임하였으며 심사숙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60건의 심의 대상 중 총 9건을 차기 심의 후보작으로 선정하였다.

무용창작산실_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의 최종 선정 심의는 총 64건의 신청 중 2차 심의를 통과한 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무용 예술의 미학적 특성과 동시대적 예술 조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제작 시스템 등 무용 분야의 창작과 관련한 제반 환경과 요건들에 대해 오랜 경험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는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2차 심의에서는 각 신청인들의 PT와 심의위원들의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편집 영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신청 사업들의 세부적인 면면들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9건의 대상 사업 중 5건을 최

중 선정하였다.

심의 대상들은 이미 공연으로 발표되었던 공연물들로서 향후 레퍼토리로서 더욱 개발하고 유지할만한 예술적 수월성과 발전 잠재력을 갖추었다는 창작자 스스로의 근거있는 판단과 외부의 인정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작품들이었고, 개선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설득력 있는 문제의식과 의지를 비교적 고르게 갖추고 있었다. 9건의 신청사업, 즉 9개의 작품들이 미학적 측면에서의 방향과 성격, 결과적 유형에 있어서 분명한 차별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각기 다른 가치로 설명될 수 있는 인식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으나, 동시에 창작자가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던 의도와 표현의 명확성은 상당한 보완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우수한 레퍼토리로서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온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제작 방식은 물론 사유 방식과 창작 방법상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감상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읽어내고자 하는 보다 객관화된 관점과 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차체에 짚어둔다.

한편 본 심의의 주요한 진행 방침과 관련하여서는 최종 선정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 전체 토의나 작품의 선정 여부와 직결되는 주장을 배제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밝혀두고자 한다. 그로인해 창작산실 레퍼토리 사업을 통해 소개할 예술의 경향이나 세부적인 양식 등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 기준을 논의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이는 지원사업의 심사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논박과 비판을 고려한 하나의 객관적인 방안일 수 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 충분한 반박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시도되어 앞으로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본 심의에서는 ‘예술적 수월성이 높은 작품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대중들을 만나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되 7명의 심의위원들이 대상 작품들의 예술적 측면, 프로그램형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숙고를 통해 개별적인 판단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은 종합점수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공연장 및 제작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 예산 배정을 뒤이어 완료하였다.

각기 다른 미학적, 사회적 추구가 담긴 9건의 대상 작품들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해서는 계획한 공연의 원활한 구현과 진일보한 예술적 성취를 기대하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다른 4건의 공연 역시 보다 많은 대중들과 공유되어야 마땅한 고유한 가치와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심할 바 없었다는 점을 밝혀두며 차후 다른 계기들을 통해서 분야 내에 참조와 지표가 되는 작품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끝으로 당락의 결과가 아닌 인터뷰 과정을 통해 9건의 대상 작품들에 대해 나누었던 질문과 대화가 작품의 고유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각 창작자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2. 3(금)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 17(금)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진이, 박환영, 반무섭, 이진미, 이주영, 최시열(유춘오), 홍승광

올해 전통예술분야에 처음 시행되는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의 심의에는 총 36편의 작품들이 지원을 했다. 그 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작품 31편(5백석 이상의 극장 신청작 13편, 5백석 미만 소극장 17편, 야외 1편)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5편이었다. 그리고 사업장소가 서울지역인 작품 25편과 지역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11편이었다.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은 우수한 창작공연이 일회성 지원으로 사장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공연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공연 레퍼토리 육성·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기존 작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작품을 선정한다.

1차 심의과정에서 먼저 논의된 것은 지원신청한 작품들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역량을 갖추었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우선, 주제나 메시지가 참신했지만 출연진들의 실력이 아직 영글지 못해 기량이 출중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인정될만한 탄탄한 실력과 성실성을 갖추었지만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대중적이지 못해서 과연 레퍼토리로 적절한지도 의문을 갖게 했다. 또 상업적인 면에서는 분명 관객친화적이긴 하지만 별다른 고민없이 선보이는 레퍼토리이거나 성실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단지 기획적으로만 접근되고 있는 부분들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내용의 우수성, 수행역량, 기대효과 등의 사업수행적 관점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에 대한 심층 토의 후 심사위원 별로 신청사업에 대하여 5단계 평가 채점하여 점수 순대로 2차 PT 심의 대상으로 7편을 선정하였다.

2차 PT 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은 우선 ‘올해의 레퍼토리’에 대한 대전제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나누었다. 전통예술분야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이 원년인 만큼 향후 지원의 방향성에 참고할 요소들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분명 시금석으로서 작용할 예정이니 레퍼토리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서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레퍼토리는 어떤 의미에선 순수예술단체가 험난한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거나 또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단지 일회성으로 별이는 사업이 아니라 그 예술단체가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재생산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수익자생성을 확보했다면 지원해야하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고

민하였지만, 기존의 공연의 단순 반복재생이 아니라 개선하고 보완하여 관객과의 접점들을 넓힐 수 있는 기획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런 면에서 몇 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공연이거나 어쩌다 한번 하는 일회성 또는 계기성 공연들이 예술적 성과와 의미를 갖출 수 있겠지만 이들은 레퍼토리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원 예산규모에 의하면 3~4편 정도의 작품이 선정되는 것이 적당하였을 것이나 채점결과 순위에서 두 편의 작품이 4위로 동순위였다. 동순위에 대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그 차이가 미비하여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려웠다. 고심 끝에 심의위원들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수많은 지원대상자들 가운데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선정단체에게 사업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5편의 작품에 힘을 실어주고자 결정했다.

문화편중의 해소책으로 지역공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배려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올해의 선정기준에서는 순위로 우선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순위체계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남긴다.

심의위원 일동

창작뮤지컬분야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2. 2(목) 10:00~14:00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 17(목) 10:00~14:00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재성, 박인선, 변희석, 정수연, 정인석, 조형준

새로운 작품의 개발이 창작뮤지컬의 시작이라면 공연의 지속성을 획득하는 것은 창작뮤지컬의 목표이다. 작품의 완성도와 시장의 경쟁력을 겸비했을 때 한 편의 뮤지컬은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덕목들을 검증하고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공연의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작품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양분인 것이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은 이러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공연됐던 작품을 대상으로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공연시장에서의 자립과 안착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대표적인 뮤지컬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해마다 수많은 창작뮤지컬이 공연되지만 그 중에서 지속적인 공연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작품의 결함 때문에 도태되는 것은 시장의 검열이 순기능으로 작동하는 예일 테지만, 작품의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시장 진입의 높은 벽에 부딪친 창작물 또한 적지 않다.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작품의 잠재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7년 사업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장르적 완성도이다. 이것은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최우선의 전제로서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레퍼토리로서의 가능성이다. 작품성과 시장성 두 측면에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예상되는 작품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셋째, 관객층 확장을 위한 다양성의 확보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어린이 청소년 작품을 독려함으로써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고 소재의 영역을 확장한다. 넷째, 작품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 제시이다. 작품의 보완에 대한 단기적 개선방향과 작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비전설정을 살핍으로써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분야 4편, 어린이 청소년 분야 1편 등 총 5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는 시의 문학과 뮤지컬의 음악성을 잘 조화시킨 작품으로, 높은 완성도를 토대로 대중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난쟁이들>은 시장에서의 검증을 마친 개성 강한 코미디로서, 웃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작품의 확장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홍글씨>는 소극장 공간의 밀도를 재해석하는 연

출의 만듦새가 돋보이고 연작의 가능성을 고려한 텍스트 활용 방식이 새롭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 작품의 시장성은 아직 가능성인 바, 시장성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그에 비해 <팬레터>는 초연 때부터 관객의 호응이 컸던 공연으로 구체적인 작품 보완을 통해 레퍼토리로서의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다. 어린이 청소년 분야의 작품으로 선정된 <모스키토 2017>은 시의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풍자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주제의식을 확장시키는 작품이다. 기존의 청소년 대상 공연과는 결이 다른 현실성 있는 작품이 기대된다.

레퍼토리의 발굴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과 이미 검증된 시장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전자를 발견하는 것이 공공성의 영역이라면 후자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업성의 영역일 것이다. 선정된 5편의 작품이 레퍼토리로서 발견되고 또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공성과 시장성의 공존을 증명하는 작품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해본다.

심의회원 일동